충남도립대 곽영길 교수,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안 발표

박보성 기자 | 승인 2024.11.11 15:49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국회 학술 세미나 발제자 참여



▲ 학술세미나

충남도립대학교경찰행정학과 곽영길 교수가 자율방범대 효과적인 운영과 경찰과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곽영길 교수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와 충남도립대 커뮤니티폴리싱연구소, 대한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지원과 협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곽영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곽영길 교수는 또 현재 경찰력의 부족이 현실적인 치안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방범대가 단순한 범죄 예방 보조 역할을 넘어 지역 치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에서 곽 교수는 이론적 근거로 △경찰의 역할 변화: '범죄와 싸우는 투사'에서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의 전환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비공식적 사회 통제 이론을 제시하며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율방범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자율방범대와 경찰 간의 상호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및 사무실 공간 등 환경적 요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성과 관리 체제 도입,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학술세미나

발표 후 곽영길 교수는 자율방범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연수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는 곽 교수가 그간 자율방범대의 교육 및 발전에 기여한 바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가 지역사회 안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의 공공재로서 그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자율방범대가 법적 위상에 걸맞은 지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 이해식·채현일 의원과 이달희 의원, 정춘생 의원이 주최했다.
/내포=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